

폭우에 '금상추'·'시금치'... 채소값 고공행진

일주일 새 상추 1734→2138원·오이 1만3000→1만8000원
시금치 1만2000원 넘게 뛰어... 예년 추석보다 무섭게 올라
기대인플레이션 8개월 만에 하락했지만 폭우 탓 채소류 예외

지난 1년간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이달 들어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 등 계속된 비 소식에 채소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8개월 만에 꺾이는 등 물가가 정점에 다달았다는 분석이지만 채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상추는 적상추 100g에 2138원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1734원에서 400원 넘게 뛰었다. 1년 전 1640원보다는 31.2% 올랐다. 청상추도 100g에 2000원(1968원)을 밑돌았지만 일주일 사이 379원 상승했다.

상추와 한 상인 대표 쌈채소 깻잎도 100g에 2612원으로 일주일 만에 265원 올랐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500원 가까이 비싸졌다.

오이는 10개에 1만8238원으로 일주일 전 1만3425원에서 4813만원이나 올랐다. 1만원(9802원)이 채 되지 않았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경증 편 셈이다.

시금치는 '시금(金)치'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시금치 1kg 가격은 3만4234원으로 일주일 전 2만1981원에서 무려 1만2253원이나 올랐다. 추석 성수기 무렵 가격 오르긴 했지만 올해는 더 무섭게 뛰고 있다.

이밖에도 얼가리배추는 1kg에 4880원, 열무도 1kg에 4884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700~800원 올랐다. 1년 전보다는 1500~2000원가량 오른 것이다.

충청지역 폭우 피해로 청양고추도 100g에 1337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00원 넘게, 1년 전(854원)보다는 500원가량 비싸졌다.

배추는 강원도 일대 고랭지 배추밭 폭우 피해가 적어 1포기에 6712원으로 일주일 전(6838원)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1년 전(4492원)보다는 2000원 넘게 비싼 상태다.

이 같은 채소류 가격 급등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물가 전망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3%로 지난달(4.7%)보다 0.4%포인트(p) 하락하며 지난 2021년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상



어느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승세가 꺾였다. 추석 이후 물가가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는 물가 당국의 입장과 함께 물가 상승 흐름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해 "9월 말 10월초가 (물가) 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폭우 피해로 추석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중호우로 일부 농작물 재배지역의 피해가 심각하고, 북부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추석(9월10일) 연휴까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잦은 비로 생육기 일조량이 부족해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 병해충이 발생하면 채소류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생육기 일조량 부족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 전년 대비 출하량

이 줄고 가격도 전년이나 평년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이 농작물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생육 회복을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해 병해충 확산 등 추가 피해 차단에 힘쓰고 있다"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2 을지연습' 실시

전북농협, 25일까지
재난대응 실제훈련 나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간 2022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022 을지연습'에서는 테러에 의한 화재발생 상황을 대비해 농협전북본부 자위소방대를 이용한 화재진압과 사상자에 대한 응급구조 활동 등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23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실시했다.

또한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오전 6시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후 임직원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안보 동영상 시청하고 비상대피대체 확립을 목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보현실 속에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안보의 위협, 대형재난 위협 등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 안보와 우리 가정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연습기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등 농협소관분야 비상대피대체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연습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서부산림청, 을지연습
산불진화 실제훈련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23일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산02-4번지 일원에서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순천국립관리소, 남원소방서가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 산불진화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해 청사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현장지휘본부 운영, 산불진화 헬기 투입, 소산기동 훈련 및 청사 화재진압 등의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산림으로 둘러싸인 서부지방산림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실제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고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남원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 및 청사 화재를 진압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였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훈련을 바탕으로 유사시 적절한 대처방법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담보대출 비율 커도 농지연금 가입 쉬워져

30%까지 확대... 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금융기관 대출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담보 금액이 농지 가격의 30%를 넘지 않는다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한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해 시행초기 5

년 동안 누적 가입 건 수가 5206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1만 건을 돌파한 뒤 올해 5월까지 2만건을 넘었다. 농지연금 지급액도 지난해 1848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20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에는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한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 농업인 가입을 확대한 데 이어 담보대출이 설정된 농지에 대한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농기계 구입이나 자녀 학자금 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 기존에는 농지가

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됐을 때에만 가입이 허용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됐다.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기간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장수물' 홍보 행사. (사진=장수군청 제공)

온라인 쇼핑몰 '장수물' 홍보

일산 킨텍스서 행사 펼쳐... 방문객들에 큰 호응

장수군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물'과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를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홍보전은 추석 명절 선물 구매를 원하는 도시민 방문객들에게 장수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물'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군은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부스를 만들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장수군은 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수물 홍보 안내책자, 장수물 바코드가 QR코드 카드, 시식용 사과즙, 오미자즙, 토마토즙 등을 배부하며 장수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농

특산물 쇼핑몰 '장수물'을 서울 경기 등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렸다.

장수물은 현재 140개 업점 업체가 사과, 한우, 곱돌, 장류까지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 중이다. 군은 판매수수료 없이 건당 2500원의 택배비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을 무료 제작 지원하고 있다.

최희식 장수군수는 "코로나 19 재유행에 따라 고품질의 장수군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지역 온라인 쇼핑몰 '장수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 지속 추진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교관호 기자

농협김치, 추석 선물로 '제격'

전북농협, 내달 2일까지 특별 할인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오는 9월 2일까지 농협몰 홈페이지와 농협경제지주 전화 주문을 통해 명절 선물로 제격인 한국농협김치 선물세트를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정에서 인기 있는 김치 7종을 밀폐용기에 담아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명품세트'와 간편하게 포장해 고객 편의를 높인 소포장 김치 5종 '대표세트'를 판매한다.

명품선물세트는 △포기김치(3kg), △충각김치(1.5kg), △백김치(1kg), △갯김치(400g), △과갯김치(400g), △무말랭이(400g), △갯김치(400g) 등 7종(7.1kg)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상가에서 15% 할인된 8만5,000원에 판매한다.

대표선물세트는 정갈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된 △별은 배추김치, △갯김치, △포기김치 등 5종을 세 가지 구성으로 선보인다. 1호(4.7kg)와 2호(4.2kg)는 5만원, 3호(5.4kg)는 5만 5천원으로, 정상가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이다. 아울러 농협은 20개 이상 세트 구매 시 1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20+1 덩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국농협김치 선물세트는 농협몰



홈페이지(www.nonghyupmail.com)와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02-2079-8227)를 통해 온라인 및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농협김치는 지난 4월 전국 8개 농협김치공장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해 출범한 농협의 김치 대표브랜드로, 100%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HACCP 인증 공장에서 안전하게 생산해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김치선물세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제격이다"면서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정성을 담아 생산한 한국농협김치를 명절 선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협은행, 법인전용 'NH플러스외화MMDA'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예금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법인전용 입출식 외화예금 상품 'NH플러스외화MMDA'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외화를 하루만 맡겨도 외화정기예금 수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기본 예치가능 통화는 USD, JPY, EUR, GBP 4개 통화이며, 기타 통화는 별도 취급 승인 후 예치할 수 있다.

금리는 통화별·금액별 차등 적용되어 미 달러(USD) 1백만 불 이상 예치 시 1.9%(연, 세전, '22.8.10기준)의 금



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도 매 분기별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므로 고액의 외화 자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의 자금관리에 유용한 법인전용 상품이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